

삼성전자, 이수앱지스 인수계획 없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소문 진상 밝혀 ... 노바셀과 공동연구 계획도 없어

삼성전자가 최근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일부 바이오·제약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거래계약 소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사업 관련 협력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수앱지스와 노바셀테크놀로지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생산이나 기술도입, 투자 면에서 아직 사업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와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고, 인수·합병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이수앱지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루머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스마트프로젝트 국책과제 이외에 이수앱지스와 개별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이수앱지스와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다. 또 이수앱지스의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잘못된 소문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 연구 협력기업으로 보도된 노바셀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일부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문제는 삼성전자를 미끼로 주가로 올렸을 때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소문으로만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14>